중위권 눈앞 이상민 감독 "흐름만 잘 타면 올라간다"


이상민 감독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가 중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위권 팀간 순위 경쟁이 뜨겁다. 2위 전주 KCC(16승10패)부터 6위 부산 KT(13승13패)까지의 승차가 3경기 밖에 나지 않는다. 그 밑으로 7위 서울 삼성(12승14패)이 4연패에 빠진 KT를 한 경기 차로 쫓고 있다.

삼성의 이상민 감독(47)은 "중위권과 하위권이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중위권 팀들이 하위 팀들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도망을 가지 못했다. 그 사이 우리가 연승을 타면서 격차를 좁혔다"고 말했다.

삼성은 1라운드에서 3승6패에 그쳤지만 2라운드에는 경기력이 좋아지면서 5승4패를 기록했다. 3라운드에선 4승4패를 기록 중이다. 최근 3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가 좋다. 특히 25일 1위 서울 SK와의 S더비에서 역전승(80-78)은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 감독은 중위권 도약을 위해 리바운드를 강조했다. 삼성은 올 시즌 경기당 34.5개의 리바운드를 기록 중이다. 10개 구단 중 최하위다. 1위 원주 DB(평균 42.7개)와는 무려 8개나 차이가 난다.

이 감독은 "우리가 작은 부분만 지키고 나가면 충분히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다고 선수들에게 얘기했다. 그 작은 부분은 바로 리바운드다"라고 말했다. 이어 "SK와의 경기에서는 신장이 작은 스몰라인업을 주로 운영했음에도 리바운드에서 크게 뒤지지 않았다. 가드들이 악착같이 리바운드에 가담한 결과다"며 "이처럼 적극적으로 리바운드에 참여하고 수비를 해준다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흐름을 잘 타야한다"고 선수들의 분발을 기대했다. 정지욱 기자

흥행 대박 'S더비' 그 뒤에 숨겨진 희생들

부친 생사 오가는데도 마이크 잡은 박종민 씨

〈SK 장내 아나운서〉

SK-삼성 프런트 함께 아이디어 회의
'좋은 이벤트 만들자' 취지에 공감대
양팀 치어리더 합동공연에 별도 연습


삼성과 SK가 수차례 회의를 거쳐 함께 기획한 '성탄 S더비'는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관중이 들어차는 흥행 속에 성공적으로 열렸다. 프런트부터 장내 아나운서까지 구성원들의 숨은 노력이 모여 만든 결실이다. 25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합동 공연을 펼치는 양 팀 선수들의 모습.

잠실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성탄절인 25일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는 뜨거운 열기를 뿜었다. 경기가 열린 인천삼산월드체육관(인천 전자랜드-부산 KT), 울산 동천체육관(울산 현대모비스-원주 DB), 잠실학생체육관(서울SK-서울 삼성)에는 총 1만9345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특히 서울 라이벌 SK와 삼성의 'S더비'가 열린 잠실학생체육관에는 7634명이 몰렸다. 올 시즌 개막 이후 한 경기 최다 관중이다. 경기 종료 직전에서야 승패가 가려지는 접전 승부가 이어진데다 풍성한 이벤트까지 펼쳐져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두 배의 즐거움을 누렸다.

S더비의 흥행에는 SK와 삼성 구단 프런트들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프로농구는 매 시즌 팀간 6번의 맞대결을 펼친다. SK와 삼성 프런트들은 6번의 S더비에서 특별한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시즌 개막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함께 회의를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SK 장지탁 사무국장은 26일 "S더비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은 양 팀이 각자의 이익보다는 '좋은 농구 이벤트를 만들어보자'는 마음을 잘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최진영 국장에게 '삼성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보태고, 우리가 부족할 때는 삼성이 보태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직원들 간에도 이야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중에서도 크리스마스에 펼쳐지는 '성탄 S더비'는 메인이벤트다. 다른 경기에 비해 비중이 높은 경기이다 보니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 홈팀 SK는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한 달여 전부터 스폰서의 협조를 구해왔다. 또한 양 팀 치어리더들은 합동공연, 선수들은 하프타임 공연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 연습까지 했다.

이번 '성탄 S더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SK의 장내아나운서인 박종민 씨(41)다. 2001년부터 SK 장내아나운서를 맡아온 그는 25일 부친이 위독한 상황이었다. 부친의 곁을 지키느라 경기 전 리허설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박 장내아나운서는 경기 직전에야 도착했다. 그는 양 팀이 공들인 큰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부친이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도 평소답게 흥을 높이면서 경기를 진행했다. SK는 박 장내아나운서가 자리를 비울 상황까지 고려해 대체 장내아나운서를 미리 섭외 해두기도 했다. SK 관계자는 "모든 상황을 몇 번씩 확인해도 불안한 마음이었다.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했고 관중들이 경기장을 가득 채워주신 덕분에 잘 끝난 것 같아 기쁘다"고 미소를 지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로드FC 전 챔피언 이윤준, 웹툰 액션 자문 맡다

뇌경색 은퇴…이후 지도자 생활
'인생존망' '싸움독학' 등에 참여


이윤준

로드FC 밴텀급 3대 챔피언 이윤준(31·로드짐 로데오)이 종합격투기(MMA)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윤준은 지난 2016년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빠른 치료를 받아 큰 위기를 넘겼지만, 밴텀급 챔피언 벨트를 반납하며 케이지를 떠났다.

은퇴 후에는 치료에 전념, 현재는 건강을 많이 회복해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다. 14일에는 굽네몰 로드FC 057에 출전, 로드FC 그래플링 매치에서 김수철과 함께 한국팀 대표로 출전해 일본팀을 꺾는데 일조했다.

MMA 선수로 활동하지는 않지만, MMA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달 채널A에서 방영된 '나는 몸신이다'에 출연했고, 최근 SBS '좋은 아침'에서 뇌경색 극복 관련 내용으로 촬영(27일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웹툰계에서도 맹활약을 이어간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유명 웹툰 '인생존망'과 '싸움독학'에 액션 자문으로 MMA를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이윤준은 "예전에 같이 살던 형이 박태준 작가와 지인이다. 그 형을 통해 문의가 왔는데, 격투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도와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윤준은 박 작가와 만나 웹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황에 필요한 동작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해당 웹툰은 사실적이고, 전문적인 웹툰으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윤준은 "좋은 기회들이 자주 오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앞으로도 대중들에게 MMA를 쉽게 전파하는 전도사 같은 느낌으로 일하고 싶다"며 "이제는 예전처럼 화끈하게 싸우는 모습을 못 보여드리지만, 운이 좋게 방송이나 웹툰처럼 좋은 플랫폼을 통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계속해서 다방면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1월부터는 유튜브 채널도 오픈 하려 한다"고 말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toto 스포츠토토

케이토토 공식 페이스북 '건전화 캠페인' 이벤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sportstoto.toto.proto)을 통해 스포츠토토 건전화 캠페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스포츠토토 공식 페이스북을 방문해 건전한 스포츠토토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준비된 캠페인 영상을 시청한 후 친구들에게 해당 영상을 전달하고, 주어진 퀴즈에 알맞은 정답과 해시태그를 답글로 남기면 참여가 완료된다. 퀴즈의 경우, "체육진흥투표권 'ㅇㅇㅇㅇㅇ'만이 유일한 합법입니다" 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주어졌다.

캠페인 영상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스포츠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만이 유일한 합법이며, 이외에 모든 유사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내년 1월 10일(금)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1월16일(목)에 스포츠토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된다. 이벤트를 완료한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카페 아메리카노 모바일 교환권을 증정한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높이 최강 레이커스, 포틀랜드 쯤이야"

농구토토 승5패 19회차 중간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28일(토)과 29일(일) 사이에 벌어지는 미국프로농구(NBA) 8경기와 국내남자프로농구(KBL) 6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농구토토 승5패 19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원정팀 LA 레이커스가 66.39%의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양 팀의 5점 이내 접전 예상은 20.57%로 나타났고, 홈팀 포틀랜드의 승리 예상은 13.04%로 집계됐다.

이번 시즌 LA 레이커스의 행보는 눈 여겨 볼만하다. 30경기(24승6패)를 치른 현재 레이커스는 홈에서 10승3패, 원정에서도 14승3패의 성적을 거둬 홈과 원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만큼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단, 유일한 문제는 앤서니 데이비스, 르브론 제임스 둘 중 하나라도 자리를 비우면 경기력에 너무 큰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 역시 르브론 제임스가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인디애나, 밀워키 벅스, 덴버에게 3연패를 당했다.

안방에서 올랜도 매직을 맞이하는 밀워키 벅스의 승리 예상은 82.31%로 집계돼 이번 회차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양 팀의 5점 차 이내의 접전승부와 올랜도 매직의 승리 예상은 각각 10.33%와 7.37%를 기록했다. 31경기를 치른 현재 27승4패의 성적을 거둔 밀워키는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강력한 동부컨퍼런스 우승 후보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유타 재즈(14.15%)와 애틀란타(15.33%)를 만나는 LA 클리퍼스(65.68%), 시카고 불스(62.93%)도 모두 60%대 이상의 지지를 받아 이번 승부에서 우세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됐다.

KBL에서는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전주 KCC가 64.88%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얻어 눈길을 끌었다. 양 팀의 5점 이내 접전승부 예상은 24.12%를 차지했고, 원정팀 울산 현대모비스의 승리 예상은 11.00%에 그쳤다.

이와 함께 서울 삼성(11.83%)과 만나는 리그 3위 안양 KGC도 63.61%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리그 최하위에 위치한 고양 오리온(12.35%)과 만나는 인천 전자랜드의 승리 예상도 63.12%로 나타나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NBA와 KBL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농구토토 승5패19회차 게임은 28일(토) 오후2시 50분까지 참여할 수 있다.

케이토토, 스포츠 나눔 통해 기부 활동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케이토토가 스포츠를 통해 따뜻한 사랑과 나눔, 그리고 사회통합을 실천하고 있다.

케이토토는 스포츠를 매개로 다문화 가정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기부 활동,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이벤트 등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케이토토와 여자프로농구 WKBL은 'W-위시코트'를 통해 총 5개의 농구 코트를 기증했다. 올해에도 'W-위시코트 시즌3'를 진행하고 있는 케이토토와 WKBL은 정규시즌이 종료되는 대로 낙후된 지역의 스포츠복지를 위해 더욱 많은 코트를 기증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농구 이외에 골프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행사도 있다. KPGA가 주관하는 코리안투어 각 대회의 라운드마다 지정된 홀에서 버디 이상을 기록할 경우 일정 금액을 적립해 기부금으로 조성하는 공익 캠페인인 '토토엔젤 캠페인' 역시 3년째 계속되고 있는 행사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된 캠페인도 있다. 지난해 12월 전개된 다문화 어린이 응원 캠페인 '다문화 다같이 캠페인, 당신의 스포츠와 함께합니다'에 이어 2019년 3월에는 사단법인 전국지역 아동센터협의회(온프렌즈), ㈜휴브와 함께 다문화·비(非)다문화 가정 사회통합 스포츠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